

순천시, 순천만 갈대숲과 천년 고찰이 빛어낸 대한민국 생태수도

전라남도 동부에 자리한 순천시는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을 품은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입니다. 갈대밭 사이로 춤추는 흑두루미의 군무, 조계산 품에 안긴 선암사와 송광사의 천년 고찰, 낙안읍성의 살아 있는 역사까지, 순천시는 자연과 역사, 문화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전라남도의 보석입니다.

순천시, 어떤 곳인가

순천시는 전라남도 동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광양시, 서쪽으로 보성군과 화순군, 남쪽으로 여수시와 고흥군, 북쪽으로 곡성군과 구례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총 면적 약 910km²에 인구 약 28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조계산과 순천만, 동천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입니다.

순천이라는 지명은 고려시대부터 사용되었으며, '순리에 따라 다스려지는 고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백제시대에는 감평군으로 불렸으며, 통일신라 경덕왕 때 승평군으로, 고려시대에 순천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순천도호부로서 호남 동부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순천의 가장 큰 자랑스런 보물은 순천만입니다. 2006년 대한민국 최초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순천만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안습지로, 갈대밭과 S자형 수로, 철새 도래지로 유명합니다. 2013년 순천만국가정원이 개장하면서 순천은 '대한민국 생태수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순천만습지, 세계가 인정한 생태 보고

순천만습지는 순천시 순천만 일대에 펼쳐진 연안습지로, 약 22.6km² 규모의 갯벌과 5.4km² 규모의 갈대밭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의 습지입니다. 2006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고, 201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순천만의 가장 큰 매력은 끝없이 펼쳐진 갈대밭입니다. 약 30만 평에 달하는 갈대밭이 바람에 일렁이는 풍경은 장관이며, 특히 가을철 황금빛으로 물든 갈대밭은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합니다. 갈대밭 사이로 난 탐방로를 걸으며 자연의 품에 안기는 힐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천만은 철새들의 낙원입니다. 매년 겨울 약 200여 종, 수만 마리의 철새가 이곳을 찾으며, 특히 천연기념물 흑두루미가 집단 도래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흑두루미가 석양을 배경으로 군무를 펼치는 장면은 순천만 최고의 비경으로 손꼽힙니다.

용산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순천만 풍경은 압권입니다. S자로 굽이치는 수로와 갯벌, 갈대

밭이 한눈에 들어오며, 해 질 무렵 노을과 함께 감상하면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순천만을 방문한다면 용산전망대는 필수 코스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순천만국가정원은 순천시 풍덕동 일대에 조성된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조성되었습니다. 약 112만㎡ 규모에 세계 각국의 정원과 다양한 테마 정원이 어우러진 대규모 정원입니다.

국가정원에는 11개국의 세계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중국,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독일, 멕시코, 태국 등 각국의 정원 양식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어 마치 세계 정원 여행을 하는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한국정원은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담양 소재원을 본떠 조성한 전통 정원은 한국 정원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으며, 연못과 정자, 담장, 꽃나무가 어우러져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사이에는 스카이큐브(무인궤도열차)가 운행됩니다. 약 4.6km 구간을 이동하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순천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두 곳을 모두 방문한다면 스카이큐브 이용을 추천합니다.

낙안읍성, 살아 있는 조선 마을

낙안읍성은 순천시 낙안면에 위치한 조선시대 읍성으로, 성곽과 마을이 원형 그대로 보존된 사적 제302호입니다. 조선시대 지방 행정의 중심지였던 읍성 내에 지금도 주민들이 살고 있어 '살아 있는 민속마을'로 불립니다.

낙안읍성의 가장 큰 매력은 원형 보존입니다. 약 1.4km의 성곽이 온전히 남아 있으며, 성안에는 초가집 100여 채가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돌담길을 걸으며 조선시대 마을에 들어온 듯한 시간 여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읍성 내에는 동헌, 객사, 내아 등 관아 건물과 옥사, 연자방아, 우물 등 생활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곳으로,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됩니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투어를 신청하면 더욱 깊이 있는 탐방이 가능합니다.

낙안읍성에서는 다양한 전통 체험이 가능합니다. 한복 대여, 전통 음식 만들기, 전통 놀이 체험, 초가집 숙박 체험 등이 운영됩니다. 초가집 민박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조선시대 생활을 체험하는 것은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선암사, 꽃으로 피어난 천년 고찰

선암사는 순천시 승주읍 조계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 고찰로, 태고종의 총본산입니다. 신

라 말 도선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선암사의 가장 큰 매력은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인위적인 꾸밈 없이 자연 그대로의 지형에 건물을 배치해 산사가 자연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계곡을 따라 조성된 진입로는 사계절 아름다우며, 특히 봄 매화와 배롱나무, 가을 단풍이 장관입니다.

선암사 승선교와 강선루는 사찰 입구를 지키는 보물입니다. 무지개 모양의 승선교(보물 제400호)는 조선시대 홍예교의 백미로, 물에 비친 다리가 완벽한 원을 이루는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속세를 벗어나 불국토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선암사에서는 템플스테이가 가능합니다. 세계문화유산 산사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참선과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암사 뒤편 야생 차밭에서 직접 차잎을 따는 체험도 특별합니다.

송광사, 삼보사찰 승보종찰

송광사는 순천시 송광면 조계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 고찰로, 조계종의 승보종찰(僧寶宗刹)입니다. 삼보사찰(불보 통도사, 법보 해인사, 승보 송광사) 중 하나로, 16국사를 배출한 한국 불교사의 중심지입니다.

송광사의 역사적 가치는 독보적입니다.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이 정혜결사를 일으킨 곳으로, 한국 선종 불교의 중흥지입니다. 이후 16명의 국사를 배출해 '승보종찰'이라는 칭호를 얻었으며, 지금도 수행 정신이 살아 있는 사찰입니다.

송광사에는 국보 3점을 포함해 수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사전(국보), 목조삼존불감(국보), 고려고종제서(국보) 등 귀중한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어 '보물 창고'로 불립니다. 하사당, 약사전, 영산전 등 조선시대 건축물도 아름답습니다.

조계산은 선암사와 송광사를 품고 있는 산으로, 두 사찰을 연결하는 등산 코스가 인기입니다. 굴목재를 넘어 약 4~5시간이면 두 사찰을 모두 탐방할 수 있으며, 산행과 사찰 순례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순천 드라마촬영장, 추억의 시간 여행

순천 드라마촬영장(순천 오픈세트장)은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드라마 촬영지로, 1960~80년대 서울 달동네와 순천 읍내 거리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에덴의 동쪽' 촬영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이후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촬영되었습니다.

촬영장에는 1960~80년대 서울 풍경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집들, 구멍가게, 만화방, 이발소 등이 당시 모습 그대로 조성되어 있어 부모님 세대에게는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움을 선사합니다.

순천 구도심 거리도 재현되어 있습니다. 순천역 앞 거리, 극장, 다방, 버스정류장 등 1970~80년대 순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거나 옛날 과자와 음료를 맛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드라마촬영장은 순천만국가정원과 가까워 함께 방문하기 좋습니다. 정원에서 자연을 즐긴 후 드라마촬영장에서 추억 여행을 즐기는 코스가 추천됩니다.

순천의 특산물과 먹거리

순천만 짱뚱어탕

짱뚱어(말뚱망둥어)는 순천만 갯벌에 서식하는 물고기로, 짱뚱어탕은 순천의 향토 음식입니다. 시래기와 함께 끓여낸 구수하고 담백한 국물이 특징으로, 순천만 인근 식당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별교 꼬막

순천과 인접한 별교의 꼬막은 순천에서도 쉽게 맛볼 수 있습니다. 쫄깃하고 감칠맛 나는 꼬막찜, 꼬막무침, 꼬막비빔밥은 순천 여행의 필수 미식 코스입니다.

순천 닭구이

순천 닭구이는 매콤달콤한 양념에 재운 닭을 숯불에 구워낸 요리입니다. 옷장거리(순천 전통시장) 일대에 닭구이 골목이 형성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유명한 순천의 명물입니다.

순천 한정식

순천에서는 남도 한정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갖가지 산채, 해산물, 젓갈, 반찬이 푸짐하게 차려진 남도 밥상은 순천 미식 여행의 백미입니다.

순천의 자연과 문화

동천

동천은 순천 시내를 관통해 흐르는 하천으로, 순천만으로 흘러갑니다. 하천 주변에 생태공원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됩니다. 특히 봄에는 동천변에 유채꽃과 벚꽃이 만발합니다.

옷장 (순천전통시장)

옷장은 순천의 전통시장으로, 지역 농수산물과 먹거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닭구이 골목, 국밥 골목 등 먹거리가 풍부하며, 시장 특유의 정겨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순천왜성

순천왜성은 정유재란 때 왜군이 쌓은 성으로, 조·명 연합군과 왜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인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성곽이 일부 남아 있어 역사 탐방지로 가치가 있습니다.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한글과 전통문화를 테마로 한 박물관으로, 고서적, 목가구, 민속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옥 건물과 정원이 아름다우며, 순천만 인근에 위치해 함께 방문하기 좋습니다.

순천의 축제와 행사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매년 가을에 열리는 동물 테마 국제영화제입니다. 전 세계 동물 관련 영화가 상영되며, 생태도시 순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축제입니다.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낙안읍성에서 열리는 전통문화 축제로, 전통 공연,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 조선시대 분위기 속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순천만 갈대축제

매년 가을 순천만에서 열리는 축제로, 황금빛 갈대밭을 배경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됩니다. 갈대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열립니다.

순천의 사계절

봄의 순천은 꽃의 계절입니다. 선암사에 매화와 벚꽃이 피어나고, 동천변에 유채꽃이 만발합니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봄꽃 축제가 열려 다양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름의 순천은 녹음의 계절입니다. 조계산에서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을 즐기고, 순천만의 초록빛 갈대밭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선암사와 송광사에서 삼림욕도 좋습니다.

가을의 순천은 갈대와 단풍의 계절입니다. 순천만 갈대밭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흑두루미가 날아옵니다. 선암사와 송광사의 단풍도 절정을 이루며, 낙안읍성의 가을 풍경도 아름답습니다.

겨울의 순천은 철새의 계절입니다. 순천만에 흑두루미를 비롯한 철새들이 가득하며, 철새 탐조가 백미입니다. 한적한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순천의 발전과 미래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보전,

국가정원 확대, 친환경 교통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생태와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KTX 순천역이 있어 서울에서 약 2시간 30분에 도달할 수 있으며, 남해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접근이 편리합니다. 여수, 광양과의 연계 교통도 좋아 동부 전남 관광의 거점이 됩니다.

이처럼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교통 인프라를 갖춘 도시들이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경우 오송 힐스테이트처럼 KTX 역세권과 생활 편의시설, 쾌적한 주거환경이 잘 갖춰진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편리함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원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터전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순천 여행 실용 정보

교통편

순천은 KTX 순천역에서 서울까지 약 2시간 30분에 도달할 수 있으며, 남해고속도로 순천IC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광주에서 약 1시간, 서울에서 약 4시간 소요됩니다. 순천버스터미널에서 전국 주요 도시로 버스가 운행됩니다.

숙박

순천시에는 호텔, 펜션, 한옥 민박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순천만과 국가정원 인근, 순천역 주변에 숙박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낙안읍성에서 초가집 숙박 체험도 가능합니다. 선암사와 송광사에서는 템플스테이가 가능합니다.

순천시로의 초대

순천시는 순천만 갈대숲의 황홀한 풍경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의 고즈넉한 정취, 낙안읍성의 살아 있는 역사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생태수도입니다. 흑두루미의 우아한 군무, 선암사와 송광사의 천년 불교 문화, 국가정원의 아름다운 풍경, 남도 음식의 깊은 맛까지, 순천은 보고 느끼고 쉬어갈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황금빛 갈대밭 사이를 걷고 싶을 때, 천년 고찰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을 때, 조선시대 마을에서 시간 여행을 즐기고 싶을 때, 순천시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태수도, 정원도시 순천시로 떠나보세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